

# 2024학년도 전북미래학교 선정

도교육청,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최종 66곳  
IB 프로그램 등 자율과제로 선진적 모델 역할 수행  
14일 전북미래학교 선정 학교 대상 협의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학년도 전북미래학교를 선정 발표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 등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

과, 최종 66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미래학교는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교육환경 구축·활용 △AI·디지털 교과서 대비 AI 코스웨어 운영 △기초·기본학력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미래역량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심 수업혁신(수업과정 및 교육과정 나눔, 수업나눔) 등 5가지의 중점과제를 실천한다. 특히 IB 프로그램, 생태전환교육, 문예체육 등의 자율과제를 수행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선진적 모델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오는 14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학년도 전북미래학교 선정 학교의 교장(감),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향후 운영 방향과 수행

과제를 안내하는 선정 학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미래학교에는 1교당 4,000만원의 기본 운영비와 학급당 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미래학교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이 높다"면서 "전북미래학교가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기반 구축 및 컨설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ICC 특화 분야 연계 베트남 시장 진출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ICC 특화 분야와 연계해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0~31일 베트남 호찌민 GEM 센터에서 열린 한-베 메가어스 엑스포(MEGA US EXPO)에서 ICC 특화 기업 3개 업체와 동행,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회장 이인호, 이하 JVADA)와 공동으로 제품 홍보 및 동남아 시장의 판로 개척에 나섰다.

이번 엑스포는 베트남 호찌민 인민위원회 산하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SIHUB)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분원 KOREAVIET이 공동주관으로 대학 및 기관과 스타트업 100개 사, 베트남 바이어 1,000개 사 등의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뷰티 16개 사, 식품 33개 사, 기타 31개 사 등의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일일 2,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았고, 참여기업과 바이어간 비즈니스 미팅이 활발히 진행됐다. 전주대 LINC 3.0 사업단은 친환경에너지 ICC의 '호안엔지니어링', 식품·생명 융합기술 ICC의 '에코팜', 문화콘텐츠 융합 메타버스 ICC의 '박금숙다중이인형연구소'가 참가, '박금숙다중이인형연구소'는 KLOVER, CTY THAN NTV VIN SCHOOL, TECH STREAM CO 업체와 15만 달러, '호안엔지니어링'은 EDEN STAR HOTEL과 1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천원의 아침밥' 운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5일부터 가치를 담은 전라북도 로컬푸드 같이 먹자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북의 신선한 농산물로 만든 천원의 아침밥 메뉴로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한 끼, 지역의 맛과 가치를 담은 천원의 아침밥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천원의 아침밥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과 비싼 일상으로 아침을 거리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한 끼 1,000원으로 양질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전주대는 우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전북형 천원의 아침밥을 만들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레시피 공모전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을 주관한 홍성덕 대외부총장은 "전주대학교의 가치를 담은 전라북도 로컬푸드 같이 먹자 천원의 아침밥을 통해 지역 농민들에게는 힘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건강하고 가치있는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는 매주 화·수·목요일 스타센터 및 학생회관 식당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5일 '제2회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 도교육청,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 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심의도 진행돼... 총 9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5일 '제2회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관련 효과적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심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공무원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적극행정위원으로 모시게 돼 영광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학교를 위한 앞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이와 함께 이날 '2023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심의도 진행됐다. 최종 선발된 공무원들은 교원 1명(장려상 군산자양중학교 교사 유정운), 5급 이하 공무원 6명(최우수상 전주은화학교 5급 김호주, 우수상 학교안전과 6급 강인근, 마령고등학교 6급 전인국, 장려상 문예체건강과 7급 소다미, 전라중학교 6급 김영춘, 군산명화학교 5급 김은용), 교육공무직원 2명(장려상 고창고등학교 교무실무사 강금남, 교양초등학교 교무실무사 김민정) 등 총 9명이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 및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은성 기자

##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개정·시행

### 도교육청, 유급병가 확대·국외연수 근거 마련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년 이후 변경된 법령이나 규칙, 단체협약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노동관련 법령 단체협약서 등의 개정 사항을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반영, 채용·근로조건·복무 등

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공무직원의 동일한 근무조건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것이다. 특히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합의(안)를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1년 미만 교육공무직원 유급병가(기존 8일~65일) 확대 △채용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의 구체적인 기준 설정(단서조항 신설) △국외연수 근거 마련 등이다. 심화적 노사협력과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올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선정

### 전북대 서일원 박사과정생, 골 고정력 향상 정형외과용 내고장장치 개발 연구과제 수행

전북대학교 서일원 대학원생(바이오노우융합공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 김철영)이 2023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박사과정생이 박사학위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19년부터 시작한 연구 장학 지원 사업이다. 연구자 20,000여명의 연구지원금이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이번 선정으로 서일원 대학원생은

한 표면개질 기술을 개발해 향상된 골유도 재생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 기술들이 확보되면 수술 후 초기 골 고정력을 높이고, 척추체융합케이지, 심자전내고장장치 등 골 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외과용 임플란트 개발을 가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과제에 선정된 서일원 대학원생은 세계 상위 10% 학술지를 포함한 국제학술지(SCI)에 주저자 2편 등 3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외과용 임플란트와 관련된 6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는 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의료가기를 제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표면개질 기술 연구'를 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는 정밀하게 조절된 고정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조직 고정장치를 최적으로 설계하고 생체활성 바이오세라믹을 활용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민원, 행정실 제외하라'를 요구하고 있다.

## "학부모 민원, 행정실 제외하라"

### 전공노 도교육청지부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보호관은 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들에게 사과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지부장 강우용)는 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보호관의 행태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면서 "죽자 총무과에서 담당하도록 한 학부모 민원 상담을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민원에 관한 일체의 상담 및 관리업무에서 행정실을 제외하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지부는 이날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보호관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자체적인 중합대책 마련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노조를 배제하고 교원과 학부모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만을 수렴했다"면서 "결국 교

육활동과 연관 없는 행정실(장)을 끼워넣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부모 민원 상담은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이 하면 되는 일"이라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끝으로 전북교육청지부는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 추진 부서를 총무과로 지정해 봤다"면서 "총무과에서 학교로 발송된 공문으로 인해 상담상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행정실 공무원에게 학부모 민원 상담 신청 배너 관리, 학부모 민원 상담 관리자 지정이 강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무너진 학교장 책임 제일 뿐 학부모의 민원을 연관성이 전혀없는 행정실에서 떠안게 돼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지원교와 학부모로 구성된 협의체의 원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징계 없음 약속... 학교 현장 갈등 해소"

### 전교조 전북지부,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관련 도교육청 "교사들이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할 것"

전교조 전북지부는 5일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행동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서거석 교육감은 조속히 '징계 없음'을 약속해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불안감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부가 파면·해임을 들먹이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었으며, 애초에 많은 학교들이 학생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수업일을 옮기는 방식의 '학교장 재량 임시휴업'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연가나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승인 해주지 않는 관리자들이 생겨나면서 학교 안에 갈등과 반목이 생겨났다고 했다. 특히 승인권자는 개인 휴가 사유가 법령에 부합하더라도 학교 수업 등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는 교육청 공문이 결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9·4 전북추모집회 참가자들이 '교사들을 보호해주세요', '우선이 되어주세요'라고 요구할 때도 입을 닫고 아무런 대

답을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징계 없음'을 약속하라는 요구를 결코 연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연가, 병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거나 대기시켜 놓은 학교장들은 조속히 사후승인을 해 갈등을 마무리짓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며 "공교육 회복의 날에 함께 한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이초 교사 49재 9·4 추모행동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연가, 병가 등을 내고 참석할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학교 방역활동 자원봉사자에 감사장

서거석 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학교 방역활동 자원봉사자 20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감사장 수여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 방역활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감염병 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감사장 수여 대상자는 254개교 887명

으로, 이날 서 교육감이 직접 대표자 20명(12개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밖에 847명은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 수여할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방역활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학교 현장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줬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애정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